

태국 여름 계절학기 파견 수기

심리학과 고승찬

이제 누군가 교환학생을 고민한다면 주저 없이 추천해준다. 공부하고 실적 쌓느라 바쁜 대학생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이번 파견 덕분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고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었다. 사실 해외여행을 술하게 가봤지만, 가족과 떨어져 홀로 해외로 나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가기 전부터 영어 수업과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지 걱정했다. 실제로 태국의 더운 날씨와 짝 찬 일정으로 몸이 아팠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영어로 된 수업을 듣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친해지고 잘 적응하면서 그런 걱정이 필요 없었음을 깨달았다.

지난 1학기 토플을 공부하며 영어에 매달렸다. 학원에 다녔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영어를 공부했다. 그렇게 원하는 점수를 이루었음에도 해외에선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영어를 아는 것만으로는 태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상대교 교환학생 도우미들이 배려해주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졌다.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용기임을 알게 되었다.

여행은 최고의 인생 공부였다. 6일간의 휴일 동안 사람들을 모아 끄라비로 떠났다.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공기가 있는 곳이었다. 새벽에 친구들과 밤바다를 구경했다. 낮엔 해변에서 함께 수영도 하고, 배를 타고 섬을 돌아보며 자연을 구경했다. 처음으로 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경험 속에서 인생과 사람에 대해 고민했다. 열정적이고 강한 정신을 가진 친구들을 보며 나를 돌아보았고 나를 바꾸게 했다.

태국 파견은 여행뿐 아니라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계기이기도 했다. 계절학기 수업은 평소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경영학을 다루었다. 동남아시아를 잘 알지 못했기에 인접 국가들과 경제, 산업과 같은 단어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교수님은 열정적이면서도 주제를 쉽게 설명해주셨다. 친환경 사업 부분에서는 새로운 흥미를 느끼기도 했다. 조별 발표과제를 준비하며 경영과 경제 분야 용어를 공부했고,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